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들 간의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동아리는 역사를 탐구하기 위한 자율 동아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동아리 활동이 침체되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짚어 보고 해결 방안을 토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부원 1: 토론 중심의 단조로운 활동으로 부원들의 흥미와 의욕이 저하되어 동아리 활동이 침체된 것 같습니다.

부원 2: ㉠ 맞습니다. 토론을 통해 진지하게 역사를 탐구하는 것도 좋지만, 부원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사회자: 토론 중심의 단조로운 활동 때문에 부원들의 참여가 저조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원 3: 토론 외에 정기적으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소재로 한 역사 영화를 함께 감상하는 것이 어떨까요?

부원 4: 저는 역사 유적 답사를 정기적으로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정기적으로 역사 영화를 감상하자는 의견과 역사 유적 답사를 다니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어느 방안이 더 좋을지 의견을 주십시오.

부원 1: 역사 영화는 역사를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 영화의 내용과 역사적 사실을 비교하면서 영화를 감상하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부원 4: 역사 영화에는 허구적인 내용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영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고 그 자료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부원 3: 역사 유적 답사에는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역사 영화 감상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활동을 실행할 때의 어려움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군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두 방안 중 어느 것이 좋을지 결정하겠습니다.

부원 1: 역사 영화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동아리 지도 선생님께서 여쭙 보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인터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원 4: ㉡ 역사 영화를 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역사 유적 답사는 답사지 조사와 선정, 사전 답사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원 2: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영화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찾을 때 적절히 역할 분담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정기적으로 역사 영화를 보는 활동을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해 토의를 원활하게 이끌고 있다.
- ② 토의 내용과 관련 있는 자료를 제시해 토의 주제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 ③ 토의 참여자 간의 감정 대립을 중재해 원만한 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발언 순서를 지정해 토의 참여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있다.
- ⑤ 보충 질문을 통해 토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발언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보기>의 ㉠~㉢와 관련지어 위 토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토의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공동의 사고 과정이다. 이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 대안의 선택에 필요한 판단 준거를 토대로 대안을 분석해 ㉢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 ① ㉠: 동아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시하고 있군.
- ② ㉠: 토론 위주의 활동으로 인해 부원들의 흥미와 의욕이 저하된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군.
- ③ ㉡: 역사 영화를 보는 활동을 하자는 대안과 역사 유적 답사를 다녀오자는 대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군.
- ④ ㉡: 부원들의 역할 분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대안 선택의 준거로 삼고 있군.
- ⑤ ㉢: 정기적으로 역사 영화를 보는 활동을 최적의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군.

3.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과거의 문제 해결 사례를 들어 동의하고 있다.
- ② ㉠: 대안의 실시로 기대되는 효과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 ③ ㉡: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생각을 바꾸고 있다.
- ④ ㉡: 다른 대안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이에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 ⑤ ㉡: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방안을 실행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4~5]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녹색 기술’이란 말을 들어 보셨나요? (대답을 듣고) 대부분 들어 보셨군요. 그럼, ‘청색 기술’이란 말은 들어 보셨나요? (대답을 듣고) 들어 보신 분이 별로 없으시네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청색 기술’입니다. 녹색 기술이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이라면, 청색 기술은 오염 물질 자체를 배출하지 않기 위한 기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청색 기술은 자연을 모방하고 자연의 순환 시스템을 따름으로써 환경 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화면에 띄우고) 땅에 박혀 있는 이 파이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파이프를 이용한 장치를 에어드롭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인공 오아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진 속 파이프를 가리키며) 이 장치를 이용하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1m<sup>3</sup> 부피의 대기에서 하루 11.5ml의 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사용 없이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땅에 박힌 파이프 속으로 공기가 모이면, 파이프가 박혀 있는 땅 속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공기 중의 수분이 물방울로 맺히게 됩니다. 이 물방울은 땅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렇게 에어드롭을 사용하면 에너지를 안 들이고도 깨끗한 물을 농작물에 댈 수 있습니다. 이 장치를 개발한 에드워드 리나커는 아프리카 나미브 사막에 살고 있는 풍뎅이가 수분을 섭취하는 방식을 모방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색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청색 기술이 환경 오염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을 모방하고 자연의 순환 시스템을 따르는 혁신적인 기술은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색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위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 중 발표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번에는 ‘청색 기술’에 대해 발표하려고 해. ‘녹색 기술’이란 말과 달리 ‘청색 기술’이란 말은 친구들에게 생소할 것 같아. ㉠ ‘녹색 기술’과 ‘청색 기술’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어. 그리고 ㉡ ‘녹색 기술’과 ‘청색 기술’의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해야겠어. 그런 후에 나미브 사막의 풍뎅이를 모방한 장치를 ‘청색 기술’의 사례로 들어 설명해야겠어. 이때 ㉢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활용해야겠지. 발표 중간에는 ㉣ 친구들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는 대상과 관련된 나와 친구들의 공통된 경험을 환기해야겠어. 발표 끝부분에서는 ㉤ ‘청색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밝히면서 당부의 말로 마무리해야겠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5.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학생들이 한 생각이다. <보기>에 드러난 학생들의 듣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학생 1: 발표자 말대로 청색 기술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 같아.

학생 2: 에어드롭 장치가 모방했다고 하는 나미브 사막의 풍뎅이의 수분 섭취 방식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

학생 3: 청색 기술이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하는데, 좋은 점만 있는 것일까? 단점은 없는 것일까?

학생 4: 얼마 전에 청색 기술의 사례로 흰개미 집을 모방한 건물이 있다는 것을 책에서 읽어 알고 있었는데, 발표 사례는 그와 동일한 성격의 사례로군.

학생 5: 에어드롭을 이용하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1m<sup>3</sup> 부피의 대기에서 하루 11.5ml의 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정보가 믿을 만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 ① 학생 1은 발표자가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의 논리적 타당성을 판단하며 들었다.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 평가하며 들었다.
- ③ 학생 3은 발표 내용이 편향된 것은 아닌지 판단하며 들었다.
- ④ 학생 4는 발표 내용을 자신의 배경지식과 관련지어 들었다.
- ⑤ 학생 5는 발표에 활용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점검하며 들었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학생 간의 대화

A: 얼마 전 뉴스에서 우리나라의 반려 동물 학대와 유기 문제에 대해 보도했는데, 혹시 봤니?

B: 응, 나도 봤어.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더라.

A: 맞아. 심각하지.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반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어 가고 있어. 하지만 이러한 장치들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점검하고, 반려 동물 보호를 위한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글을 써서 신문에 투고하려고 해.

B: 좋은 생각이야.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줘.

### (나) 초고

반려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반려 동물도 많아졌다. 반려 동물의 학대와 유기 문제는 이제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어 가고 있지만, 이들이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동물 등록제는 반려 동물의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 동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반려 동물을 공공기관에 등록하게 만든 제도로, 2014년부터 그 대상 동물을 반려견으로 한정하여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반려견을 제외한 다른 반려 동물들은 등록 대상이 아니며, 아직까지 반려견의 등록률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동물 보호 센터는 유기된 반려 동물을 보호하고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될 수 있게 해 주는 기관이다. 동물 보호 센터가 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경우, 유기된 반려 동물이 좋은 주인을 만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동물 보호 센터는 운영 여건이 열악하여 반려 동물의 유기나 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여 반려 동물에 대한 학대와 유기를 방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 등록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률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 보호 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려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 반려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보호 활동에의 참여를 촉구하는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6.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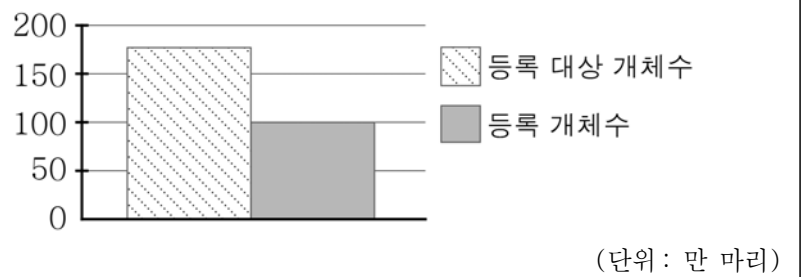
- ① 독자와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서 표현 행위이다.
- ② 독자의 반응을 토대로 내용을 조정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다.
- ③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표현 행위이다.
- ④ 독자와 필자의 공동된 경험을 환기하여 공동체의 정신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행위이다.
- ⑤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토대로 사회의 공통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정립하는 과정이다.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해 (나)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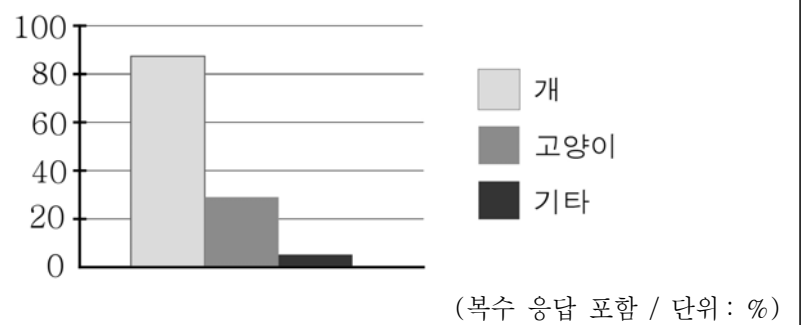
### < 보 기 >

#### I. 통계 자료

##### 1. 반려견 등록 현황(2015년)



##### 2. 반려 동물 사육 가구의 동물종별 사육 현황(2015년)



#### II. 신문 기사

동물 보호 센터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30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90% 이상이 민간 위탁 시설이다. 이들 대부분은 재정, 시설, 인력 등이 부족해 자원봉사자들의 열의에 기대어 겨우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III. 전문가 인터뷰

“미국의 경우 동물 유기나 학대에 대해 최고 10년의 징역형이나 1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처벌 수위도 낮습니다.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고작이며, 실제로 처벌 받은 경우에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 정도가 매우 미미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반려 동물을 사람에 종속된 소유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반려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① I-1과 II를 활용하여, 1문단에서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의 근거로 삼는다.
- ② I-1, I-2를 활용하여, 2문단에서 등록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의 범위와 반려견 등록 현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근거로 삼는다.
- ③ II를 활용하여, 3문단에서 열악한 운영 여건으로 인해 동물보호 센터가 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한다.
- ④ III을 활용하여, 4문단에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처벌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는다.
- ⑤ III을 활용하여, 5문단에서 반려 동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8. ㉠을 위한 문구를 <조건>에 맞게 썼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1. 반려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보호 활동에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
2. 대구를 활용할 것.

- ① 당신의 마음이 열려야, 당신의 손길이 닿아야 반려 동물 유기와 학대를 끝낼 수 있습니다.
- ② 반려 동물 복지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초록 불을 켤 때입니다.
- ③ 좋을 때만 반려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당신의 반려 동물과 눈을 맞춰 주세요.
- ④ 우리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반려 동물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는 반려 동물
- ⑤ 동물 학대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반려 동물 학대를 감시하는 보안관이 되어 주세요.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원고 요청서]**  
 최근 빅 데이터 전문가가 유망한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교지에 빅 데이터 전문가를 소개하는 글을 신고자 합니다.

**[작문 계획]**

- 처음
  - 빅 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관심 증대 ..... ㉠
- 중간
  - 빅 데이터 전문가가 하는 일 ..... ㉡
  - 빅 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수요 ..... ㉢
  - 빅 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방법 ..... ㉣
- 끝
  - 빅 데이터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전망 ..... ㉤

**[초고]**

빅 데이터는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며 남긴 수많은 ‘디지털 흔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다루는 ‘빅 데이터 전문가’를 여러 매체에서 유망한 직업으로 추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빅 데이터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빅 데이터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를 ㉠ 궁금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빅 데이터 전문가는 빅 데이터를 활용해 부가 가치를 ㉡ 창 안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일을 한다. 예를 들면, 드라마 시청자들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실시간으로 남긴 메시지를 분석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는 정보를 생산한다.

빅 데이터 전문가는 컴퓨터 공학과 통계학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인정받는 빅 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어렵다. 빅 데이터 전문가들은 ‘통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컴퓨터 시스템이 갖지 못하는 통찰력을 갖추는 것이 빅 데이터 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빅 데이터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여러 대학에서 관련 전공 및 교육과정을 개설해 빅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지식을 교육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을 받는 것과 함께 다양한 독서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 현상을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빅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빅 데이터가 우리 ㉤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다녔지만 빅 데이터 시대에는 정보가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그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빅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가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9. ‘작문 계획’의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궁금해 하는’으로 고친다.
- ②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고안’으로 고친다.
- ③ ㉢: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므로 ‘하지만’으로 고친다.
- ④ ㉣: 글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
- ⑤ ㉤: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삶’으로 고친다.

[11 ~ 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

학생 A: ‘뱀씨’는 ‘벼’와 ‘씨’가 결합한 말이잖아? 그런데 왜 ‘벼씨’가 아니라 ‘뱀씨’야?

학생 B: 그러고 보니 ‘살’과 ‘고기’가 결합한 말도 ‘ㄱ’이 ‘ㅋ’으로 바뀌어서 ‘살코기’로 쓰이고 있어.

학생 A: 그렇구나. 왜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는 것일까?

**[자료]**

현대 국어와 달리 15세기 국어에서는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 즉 어두 자음군이 올 수 있었다. 그러한 자음군 중 맨 앞의 ‘ㅂ’은 당시에는 실제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ㅂ’은 훗날 탈락하였으나 과거에 만들어진 복합어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현대 국어의 ‘벼+씨→뱀씨’에서 ‘ㅂ’이 생겨나는 이유는 ‘씨>씨’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15세기에는 ‘씨’의 어두에 ‘ㅂ’이 있었는데, 당시 ‘벼+씨→벼씨’가 만들어진 후 나중에 ‘씨’의 어두에 있는 ‘ㅂ’이 앞 형태소의 받침 자리로 가서 붙어 ‘뱀씨’와 같은 어형이 생성되었다. ‘씨>씨’에서 보듯이 훗날 단일어에서는 ‘ㅂ’이 탈락하였다. 그러나 ㉠ 복합어 속에서는 ‘ㅂ’이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현대 국어에서 확인된다.

15세기 국어에는 체언 종성에 ‘ㅎ’을 가진 단어들 존재했는데, 이를 ‘ㅎ’ 종성 체언이라고 한다. 이 ‘ㅎ’ 역시 훗날 탈락하였으나 과거에 만들어진 단어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ㅎ’ 종성 체언이었던 ‘술ㅎ’을 살펴보자. ‘ㅎ’ 종성 체언은 단독형으로 쓰일 때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으나 ‘술ㅎ+이→술히’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연음이 되어 나타났다. 현대 국어의 ‘살+고기→살코기’에서 ‘ㄱ’이 ‘ㅋ’으로 바뀌는 이유 역시 ‘술ㅎ>살’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ㅎ’ 종성 체언은 ‘ㄱ, ㄷ, ㅂ’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할 때 ‘ㅎ’ 종성이 뒤에 오는 ‘ㄱ, ㄷ, ㅂ’과 결합하여 ‘ㅋ, ㅌ, ㅍ’으로 축약되어 나타났다. 즉 ‘술ㅎ’이 ‘고기’와 결합한 말이 만들어질 때 ‘ㅎ’이 ‘ㄱ’과 결합하여 축약되었으므로 ‘살코기’와 같은 어형이 생성된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 단일어의 ‘ㅎ’ 종성은 대체로 소멸하였으나 ‘살코기’ 외에도 ㉡ 복합어 속에서 ‘ㅎ’이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더 있다.

11. 위 ‘대화’와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5세기 국어에서 ‘씨’의 어두에 있는 ‘ㅂ’은 실제로 발음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군.
- ② 15세기 어두 자음군 중 맨 앞의 ‘ㅂ’은 단일어에서 훗날 탈락하였군.
- ③ 15세기 국어의 ‘ㅎ’ 종성 체언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겠군.
- ④ 현대 국어에는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이 오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군.
- ⑤ 현대 국어의 ‘살코기’에서 ‘ㅋ’은 ‘ㅎ’ 종성 체언의 흔적이 단어에 남아 있는 것이군.

12. ㉠, ㉡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 a. 휘쓸다: ‘휘-’와 ‘쓸다’가 결합한 말인데, ‘쓸다’는 옛말 ‘쓸다’에서 온 말이다.
- b. 햅쌀: ‘해-’와 ‘쌀’이 결합한 말인데, ‘쌀’은 옛말 ‘쌀’에서 온 말이다.
- c. 수평: ‘수-’와 ‘평’이 결합한 말인데, ‘수’는 옛말에서 ‘ㅎ’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 d. 안팎: ‘안’과 ‘밖’이 결합한 말인데, ‘안’은 옛말에서 ‘ㅎ’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 e. 들뜨다: ‘들다’와 ‘뜨다’가 결합한 말인데, ‘뜨다’는 옛말 ‘뜨다’에서 온 말이다.

	㉠	㉡
①	a, b	c
②	a, e	c
③	a, b	d
④	b, e	d
⑤	a, b, e	c, d

13. <보기>의 ㄱ~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그가 이 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졌다.
- ㄴ. 언니가 빵을 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 ㄷ. 오빠가 동생이 가게에서 산 빵을 먹었다.
- ㄹ. 나는 집에 가기만을 기다렸다.
- ㅁ. 누나가 집에 가기에 바쁘다.

- ① ㄱ과 ㄴ의 안긴문장은 각각의 안은문장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 ② ㄴ과 ㄷ의 안긴문장은 각각의 안은문장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 ③ ㄴ의 안긴문장은 ㄷ의 안긴문장과 달리 안긴문장 속에 생략된 필수 성분이 없다.
- ④ ㄷ과 ㅁ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각각의 안은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 ⑤ ㄹ과 ㅁ의 안긴문장은 각각의 안은문장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ㄱ~ㅍ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한글 맞춤법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예 이것은 책이오. / 이것은 책이 아니오.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오’는 ‘이요’로 적는다.  
 예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선생님의 설명:** 제15항 [붙임 2]에서 설명하는 어미 ‘-오’는 하오체 종결 어미입니다. 이 어미 ‘-오’는 [오]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로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가 ‘이다’,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이오’로 활용할 때, ‘차(車)’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하는 경우 ‘차이오→차요’와 같이 ‘-이오’가 ‘-요’로 줄어 쓰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오’가 줄어든 형태인 ‘-요’는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와 그 형태나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언어생활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제시된 자료를 분석해 봅시다. 단, ㄱ과 ㅍ은 모두 말하는 도중에 상대 높임의 등급을 바꾸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 ㄱ. 이것은 들판이요, 저것은 하늘이요.
- ㄴ. 선배: 고향이 어디니? / 후배: 서울요.
- ㄷ. (고향을 묻는 물음에 대한 답) 부산이오.
- ㄹ. 무얼 좋아하시오? 소설이오? 아니면 영화요?
- ㅁ. 무얼 좋아하세요? 소설요? 아니면 영화요?

- ① ㄱ의 밑줄 친 ‘이오’는 [이요]로 발음할 수 있다.
- ② ㄴ의 밑줄 친 ‘요’를 ‘이요’로 바꾸어 적을 수 있다.
- ③ ㄷ의 밑줄 친 ‘부산이오’는 하오체 문장에 해당한다.
- ④ ㄹ의 밑줄 친 ‘요’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이오’가 줄어든 형태에 해당한다.
- ⑤ ㅁ의 밑줄 친 ‘요’는 둘 다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에 해당한다.

15 <보기>는 사전 자료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크다** [커, 크니]  
 [I] 형용사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예 키가 크다.  
 [II] 동사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예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크지 못한다.

**키우다** [...을] [키우어(키워), 키우니]  
 크다 [II]의 사동사

- ① ‘크다’[I]과 ‘크다’[II]는 별도의 품사로 기술된 걸 보니 동음이의어이겠군.
- ② ‘크다’[I]과 ‘크다’[II]의 반의어로는 모두 ‘작다’가 가능하겠군.
- ③ ‘크다’[I]의 용례로 ‘키가 몰라보게 컸구나.’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크다’[II]는 사동사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하나 늘어나는군.
- ⑤ ‘크다’와 ‘키우다’는 모두 어미 ‘-어’가 결합하면 어간 끝의 모음이 탈락하는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에 있으며, 인간은 행복에 이르기 위해 ‘덕’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덕’은 인간 고유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다. 그는 동물이나 식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기능이 이성의 활동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이성의 활동에 있어서의 ‘탁월함’, 즉 이성의 본래적 기능인 사유와 추론에서의 탁월함과 더불어 비이성적 부분이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능력에 있어서의 탁월함에 있다.

(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유와 추론에서의 탁월함을 ‘지성의 덕’이라고 하며, 지성의 덕은 오랜 시간의 교육과 이론적 탐구를 통해 길러진다고 한다. 한편, 비이성적 부분인 ㉠ 감정과 욕망이 ㉡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능력에 있어서의 탁월함을 ‘품성의 덕’이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품성의 덕은 부단한 실천을 통해 길러진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감정, 그리고 행위에 있어서 이성의 명령에 따라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품성의 덕은 ‘중용’이다. 중용은 욕망, 감정, 행위에 있어서 넉넉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알맞음의 극치, 또는 최적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중용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동기나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중용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은 상대적인 중간점이다. 이렇듯 중용이라는 것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를 정확하게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 ‘실천적 지혜’는 지성의 덕 중 하나로, 인간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중용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천적 지혜는 품성의 덕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실천적 지혜라는 이성적 명령에 따라 어떤 욕망이나 감정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심사숙고’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심사숙고를 통해 욕망, 감정, 행위에 있어서 중용에 도달할 수 있다.

(마)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근본이 되는 덕을 따르는 일이 지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경고하며, 그냥 아는 것보다는 실제로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실제로 유덕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덕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용감한 행동을 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된다.

16.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인간의 행복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지성의 덕’과 ‘품성의 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다): ‘중용’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④ (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실천적 지혜’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 ⑤ (마):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덕한 행동의 실천을 중시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17.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음 사례의 A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례]

장군 A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용기를 갖고 싸워 누구보다 많은 공을 세웠다. A의 부대가 국경을 지키고 있던 어느 날, 적군이 쳐들어 왔다. A는 적군의 병력과 무기, 아군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략한 적군에 대해 즉각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보고 병사들을 데리고 일단 후퇴하여 후일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를 두고 용기 없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 ① 실천적 지혜에 따라 심사숙고하여 행위하였기 때문입니다.
- ②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③ 중용에는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 ④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에 이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 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용기 있는 일을 실천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18.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아리스토텔레스는 ㉠와 ㉡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 ]

- ① 건축가가 설계도를 바탕으로 집을 짓듯이, ㉠를 바탕으로 ㉡를 형성해야 한다.
- ② 제자가 스승의 업적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듯이, ㉠를 함양하여 ㉡를 능가해야 한다.
- ③ 기름과 물이 서로 섞이지 않은 채로 있듯이, ㉠와 ㉡는 서로 독립적으로 있어야 한다.
- ④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듯이, ㉠는 ㉡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 ⑤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중물이 필요하듯이, ㉠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 먼저 존재해야 한다.

19. 밑글 친 단어 중 ‘넘침’과 ‘모자람’의 의미가 모두 있는 것은?

- ① 참석자의 과반수(過半數)가 그 안건에 찬성하였다.
- ② 수도권에 인구가 과다(過多)하게 집중되고 있다.
- ③ 과도(過度)한 지출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 ④ 과소비(過消費)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 ⑤ 과부족(過不足)이 없이 꼭 들어맞다.

[20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의 표장(標章)을 말한다. 어떤 표장이 상표로 등록받아 배타적 독점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표장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해 주는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상표법 제6조 ‘상표 등록의 요건’에 따르면, 상품의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기본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통명칭이란 사과, 소금 등 통상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명칭이라 하더라도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된 경우, 또는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 등과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관용하는 상표란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지만 상표권자가 상표 관리를 허술히 하여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용 표장도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과 결합될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생산 방법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記述的) 표장만으로 된 상표 역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표장만으로는 그 상품의 출처가 식별될 수 없으며, 경쟁업자도 자기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표장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국가명이나 대도시명 등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박’이나 ‘이’와 같이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법인명 등 흔히 있는 명칭만으로 된 상표, 그리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등도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상품의 산지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 단체 표장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표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표장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통명칭 표장이나 관용 표장이 아니라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될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 등록을 출원\*하기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 그것은 이미 상표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경쟁 업자들의 자유 사용을 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부정 경쟁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상표 사용을 막아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상표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라도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들이 있는데, 이는 상표법 제7조에 제시되어 있다. 국기나 국제기관의 명칭과 같은 공공 표장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 먼저 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누구의 상품인지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 등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출원: 청원이나 원서를 냄.

20. 윗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② 보통명칭 표장과 관용 표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 ③ 어떻게 하면 보통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가?
- ④ 출원한 상표의 식별력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인정받는가?
- ⑤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왜 등록을 받을 수 없는가?

21. 윗글에 근거할 때, 출원하려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 ① 이것은 식별력이 인정되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관의 명칭과 같더라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 거야.
- ② 이것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자만으로 법인을 구성하여 출원한다면 상표로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③ 이것은 동업자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상표로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④ 이것은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표장이므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표장과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더라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을 거야.
- ⑤ 이것은 상표법 제7조에 제시되어 있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 거야.

22. 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함께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김 씨는 특허청에 산지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지만 등록이 거절되었다. 그러자 김 씨는 자신이 30년 전부터 이 상표로 상품을 생산해 왔다는 자료와 함께 출원 전에 지역 신문에 자신의 상품이 소개되었던 기사, 그리고 특허청의 등록 거절 소식이 전국 신문에 보도되었던 기사를 근거 자료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심판 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는 것은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표장에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범위가 전국에 걸쳐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하였다. 이 판례를 근거로 하여, 특허심판원에서는 ( ㉠ )

- ① 청구인의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청구인 지역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 ② 청구인의 상표가 출원 후에는 수요자들에게 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 ③ 청구인의 상품이 오랫동안 생산되어 왔기 때문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 ④ 청구인의 상표가 처음에는 관용하는 상표였지만 현재 기술적 상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 ⑤ 청구인의 상표가 출원 전에 수요자들에게 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23. 윗글의 ㉠과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상표법 제53조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때 ㉡ 먼저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디자인권 등과 저촉\*되는 경우, 그 상표의 사용은 해당 특허권·디자인권 등을 소유한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등록 상표를 남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금지권은 유지되므로,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촉: 서로 다른 종류의 권리가 서로 부딪치거나 모순됨.

- ① ㉠과 ㉡는 모두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 ② ㉠은 누군가 권리를 침해할 경우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는 그렇지 않다.
- ③ ㉠은 소유권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는 다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의 보호를 받는다.
- ④ ㉠은 출원된 뒤부터 상표권자의 권리가 인정되지만, ㉡는 출원 이전이라도 해당 소유권자의 권리가 인정된다.
- ⑤ ㉠은 그보다 늦게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는 그와 저촉되는 등록 상표의 사용을 제한한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흔히 건반 악기라고 부르는 피아노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건반으로 연주하는 현악기이다. 건반과 연결된 해머가 현을 때리면 현이 진동하게 되고, 이 진동으로 생성된 음이 음향관에서 증폭되어 특유의 음색을 가진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그랜드 피아노를 기준으로 피아노에서 특유의 소리가 나기까지 어떤 것들이 관여하는지 살펴보자.

우선 피아노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액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건반마다 하나씩 있는 액션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우선 액션은 건반을 누른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액션에 있는 해머가 현을 때리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둘째, 건반을 누를 때에는 해당 현의 댐퍼가 현에서 떨어지게 했다가 손을 건반에서 뗄 때 댐퍼가 현에 다시 붙게 한다. 건반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해머에 의해 진동을 시작한 현이 계속 진동할 수 있게 하고, 그 건반에서 손을 떼면 댐퍼가 다시 현에 붙도록 하여 다른 현이 진동할 때 공명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셋째, 해머가 현을 때리는 즉시 액션은 해머를 현에서 이탈하게 한다. 액션이 이처럼 작동하는 이유는 만약 해머가 현을 때리고 곧바로 떨어지지 않거나, 해머가 현을 때린 후 그 반동으로 인해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해머의 방해로 현이 자유롭게 진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반 하나에 액션은 하나가 대응하지만 현은 그렇지 않다. 건반 하나에 같은 음높이로 조율된 여러 개의 현들이 대응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저음부에는 해머 하나에 같은 음높이의 현이 1~2개씩 대응되어 있고, 중고음부에는 2~3개씩 대응되어 있어 해머가 한 번에 여러 개의 현을 때릴 수 있다. 그에 따라 같은 음높이를 가진 현이 여러 개 진동하므로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진동은 현과 음향관을 잇는 역할을 하는 브리지를 거쳐 음향관으로 전달된다. 음향관은 현의 진동을 전달 받아 공기와의 접촉면을 넓혀 음량을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 음향관에는 향봉이 부착되어 있어 음이 음향관 전체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음향관의 모양은 피아노 특유의 음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피아노의 페달 역시 페달을 밟고 있는 동안 특정 역할을 수행하여 음색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피아노의 세 페달 중 오른쪽에 있는 페달을 ‘댐퍼 페달’이라고 한다. 이 페달을 밟으면 모든 현에서 댐퍼가 일제히 떨어지게 된다. 만약 댐퍼 페달을 밟고 건반을 누른다면 현의 진동은 건반을 누르지 않은 다른 현에도 공명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건반에서 손을 떼도 이 같은 현상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댐퍼 페달은 연주된 음을 지속적으로 울리게 하여 음향을 풍부하게 하고 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효과를 낸다. 왼쪽 페달은 ‘소프트 페달’이라고 하는데, 이 페달을 밟으면 해머가 한쪽으로 조금씩 움직여서 해당 건반의 해머가 때리는 현의 수를 3현은 2현으로, 2현은 1현으로 감소시킨다. 이를 통해 음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가운데 페달은 ㉠ ‘소스테누토 페달’이라고 하는데, 이를 밟은 채 건반을 누르면 해머가 때린 현의 댐퍼만이 현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음색에 변화를 줄 수 있다.

2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아노의 종류와 그 차이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피아노의 주요 장치와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피아노의 제작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피아노의 작동 원리를 다른 대상과 비교하고 있다.
- ⑤ 피아노의 연주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부각하고 있다.

2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향관의 모양은 피아노 특유의 음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군.
- ② 건반 개수는 액션 개수와는 같지만, 현의 개수보다는 적겠군.
- ③ 건반을 세게 내려치면 액션은 그 힘을 자연스럽게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는군.
- ④ 건반을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해머가 현을 때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⑤ 해머가 현을 때린 후 곧바로 현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연주자가 의도한 대로 현이 울리지 않을 수 있겠군.

26. ㉠을 밟았을 때의 효과를 바르게 추론한 것은?

- ① 건반에서 손을 떼도 해당 건반 음이 지속된다.
- ② 건반에서 손을 떼도 해당 건반 음 외의 다른 음이 공명한다.
- ③ 건반에서 손을 떼지 않아도 해당 건반 음을 멈춘다.
- ④ 건반을 누를 때 해당 건반 음의 음량을 감소시킨다.
- ⑤ 건반을 누를 때 해당 건반 음 외의 다른 음이 공명한다.

27.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연주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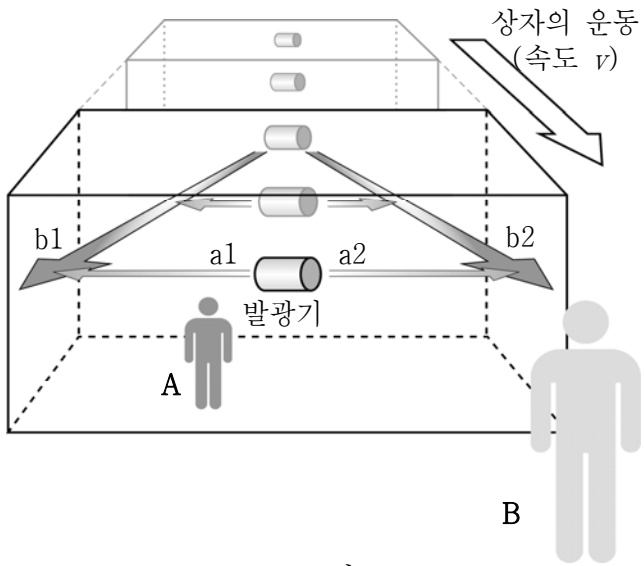
a      b      c      d

※ 단, ㉠을 연주할 때부터 댐퍼 페달을 밟았다가, ㉡를 연주하기 직전에 댐퍼 페달에서 발을 뺀다.

- ① ㉠을 연주할 때, 건반을 손에서 떼 후에도 현은 계속 진동하게 되므로 ㉡의 연주 음과 부드럽게 연결된다.
- ② ㉡를 연주할 때, 건반을 누르고 있는 동안 해당 현만 댐퍼에 붙지 않으므로 댐퍼 페달을 밟지 않을 때보다 음량이 커진다.
- ③ ㉡를 연주할 때, 건반을 매우 강하게 누른다고 해도 ㉢에서는 어떠한 현도 진동하지 않기 때문에 ㉢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 ④ ㉡를 연주할 때에는 ㉠, ㉡와 달리 건반을 손에서 떼 후에는 해당 건반의 현 외에는 울리지 않게 된다.
- ⑤ ㉡를 연주할 때, 건반들을 누르고 있는 동안 해당 건반들의 댐퍼는 현에서 떨어져 있으므로 해당 음들이 서로 공명을 일으킨다.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인슈타인 이전 과학자들에게 에너지와 질량은 별개의 독립적인 물리량이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E = mc^2$ 이라는 공식으로 에너지(E)와 질량(m)의 관계를 밝혔다.



<그림>

㉠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상대성의 원리’와 ‘광속 일정의 원리’라는 두 가지 공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림>과 같은 ㉠가상의 사고(思考) 실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큰 상자가 있고 상자 안에는 A와 발광기가 각각 상자에 대해 정지 상태에 있다. 상자 안의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상자 밖의 B를 향해 그 상자는 등속도로 접근해 오고 있다. 그리고 발광기가 어느 순간 좌우를 향해 완전히 같은 세기의 빛(에너지)을 발사한다. A의 입장에서 본다면, 발광기가 빛을 발사했지만 <그림>의 a1, a2와 같이 서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동시에 발사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반동은 완전히 상쇄되어 발광기는 빛을 발사한 후에도 상자 안에서 상자에 대해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B의 입장에서 상자가 자신을 향해 접근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상자 안의 발광기도 상자와 같은 속도로 접근해 온다. 그런데 발광기가 발사한 두 빛은 <그림>의 b1, b2와 같이 비스듬히 좌우로 퍼지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빛의 발사로 인한 반동이 완전히 상쇄되지 못한다. 상쇄되지 못한 반동은 발광기의 운동에 감속 요인으로 작용하여, 상자의 속도에 비해 발광기가 접근해 오는 속도가 느려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발광기의 운동이 A와 B에게 각각 다르게 보이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모순과 관련하여 아인슈타인은 ㉡빛의 발사라는 에너지의 방출이 발광기 질량의 손실을 의미한다면, 빛을 방출하는 것에 따른 감속과 질량을 잃은 것에 따른 가속이 균형을 이루면서 발광기가 상자와 같은 속도로 B에게 접근한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A와 B가 보는 상황은 다르지 않으며, 서로 다른 물리량이라고 생각되었던 에너지와 질량이 광속(c)을 환산인자\*로 하여 서로 환산될 수 있는 물리량이 된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물체의 질량이 그 물체가 가진 잠재적인 에너지에 대한 척도이며, 물체가 에너지를 방출하면 그 질량은  $E/c^2$ 만큼 작아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광속(c)이 진공 중에서 대략 초속 30만 km이므로, 광속을 제곱한 값( $c^2$ )은 대략  $9 \times 10^{16} \text{m}^2/\text{s}^2$ 의 천문학적인 수가 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우리에게 매우 작은 질량의 물질도 엄청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고 할 수 있다.

\* 공리: 수학이나 논리학 따위에서 증명이 없이 자명한 진리로 인정되며,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 데 전제가 되는 원리.  
\* 환산인자: 어떤 단위로 표시되는 양을 다른 단위로 나타내기 위하여 곱하거나 나누는 인자.

28. 밑줄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 ①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
- ② 아인슈타인의 공식에서 광속의 역할
- ③ 광속의 변화 이유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
- ④ 아인슈타인의 공식에 나타난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
- ⑤ 에너지와 질량의 관련성에 대한 아인슈타인 이전 과학자들의 생각

29. ㉠에 근거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전환 전후의 에너지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 전체의 질량과 생성물 전체의 질량은 같다.

- ①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엄밀한 의미에서 에너지의 총합은 증가하겠군.
- ②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엄밀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서 질량의 변화 여부도 고려되어야겠군.
- ③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의 질량보다 생성물의 질량이 크다면 반응 결과에 따른 생성물에 잠재된 에너지는 증가했겠군.
- ④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의 유입이나 유출이 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군.
- ⑤ 화학 반응에서 발열 등으로 질량 손실이 일어난다고 해도 일상적인 수준에서는 감지하기 어려울 만큼 적은 양이겠군.

30.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빛의 방출에는 반동이 수반된다고 본다.
- ② ㉠에서 A와 B가 인식하는 빛의 진행 방향은 다르다고 본다.
- ③ ㉡에서 에너지의 방출은 질량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에서 A와 B는 모두 발광기를 상자에 대해 정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본다.
- ⑤ ㉡에서 발광기에서 발사한 두 방향의 빛은 결과적으로 발광기의 운동을 변화시킨 것으로 본다.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집이 거기쇼?”  
 고깔모자를 쓴 사람은 색안경이라면 질색이다. 그에겐 색안경을 쓴 사람은 형사다. 그리고 형사는 기피자를 단속한다. 그는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까지 매달 월급날이면 정기적으로 형사의 ‘예방’을 받은 적이 있다.  
 “예? 예. 선생님은요.”  
 “나요? 난 거긴 배꼽 따고 처음이오.”/“호 호 호.”  
 여자의 웃음 소리는 김 씨의 상상을 망쳐버린다. 그는 장님이 되는 생각을 비장한 마음 없이는 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바야흐로 절정에 도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킬킬거리는 여자의 ㉠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살찐 여자. 그리고 그는 안마장이. 그러나 그는 별로 서운치 않다. 포동포동한 여인을 안마한다는 생각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를 부르는 여자는 그의 애인이고 킬킬거리며 웃는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다. 그는 그녀의 남편을 안마한다. 그녀는 바로 곁에서 시중듣고 있지만 안경을 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는 안마를 끝마친다. 그녀는 그에게 몇 푼의 돈을 쥐여준다. 그는 그것을 받아놓고 다시 길거리로 나온다. 그리고 통소를 꺼내 불기 시작한다.  
 “아, 인제 떠날래나?”  
 창문인 줄만 알았던 앞쪽의 유리창 일부가 밑에까지 움푹 패이면서 열리자 장갑 낀 손이 쑥 들어오더니 턱과 뺨 위로 수염이 검실검실 돋은 운전사의 머리를 차 안으로 끌어들인다. 머리가 들어오자 잠바가 따라 들어오고 그 뒤로 호주머니께가 허영게 닳은 낡은 코르덴 바지가 딸려 들어온다. 운전사는 자리에 앉자 한 손으로 운전륜을 잡고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본다. 손님 머릿수가 적은 것이 눈에 안 차는 모양이다. 끄 하고 돌아앉아서 한쪽 어깨를 기울이고 스위치를 넣더니 부르릉 발동을 건다. 삼십 분 동안이나 기다린 손님들이 오히려 미안해 해야 할 모양이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수가 적은가! 정원 사십팔 명에 한 백 명쯤 타가지고 숨도 못 쉬고 북적거리고 있었더라면 운전사가 조금은 미안해했을지도 모를 텐데.  
 “애, 이제 슬슬 떠나보련?”  
 잠바를 입은 사나이는 엉덩이부터 차에 오르고 있는 여차장을 쳐다보고 있다.  
 “네, 곧 가요.”  
 차장은 질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생각이 전혀 없다.  
 “아직 안 가?”  
 “곧 가요.”/“여기가 중국집인 줄 아니?”  
 “왜 내가 중국집에 있어요?”  
 ㉡ 차장은 비로소 뒤를 돌아본다.  
 “너, 꿈이로구나?”/“내가 왜 꿈이어요? 아저씨 댜데요?”  
 “나? 난 네 할배다.”  
 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고깔모자는 자연스럽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 특히 왼쪽으로. 여자는 그럴 때마다 창문 쪽으로 피하는 척한다. 그리고 미안한 생각에서 그를 쳐다보아준다.  
 “군하리엔 뭇 하러 가세요?”/“놀러요.”  
 “일행이세요?”  
 “예.” ㉢ 그는 목소리를 낮춘다. “저 사람은 늙은 대학생 김 씨. 이쪽은 세무서 직원 이 씨. 그리고 난 얼마 전까지 국민학교 선생. 성은 박 씨. 대개 이렇소.”  
 “정말 묘하게 어울리셨어요. 친구분들이세요?”

“우린 한 집에 살고 있지요.”/“어머, 그러세요?”  
 “그럼은요. 우리집에 저 두 사람이 하숙하고 있지요.”  
 김 씨는 차창 유리에 이마를 댄다. 차체의 진동이 그대로 전달되어온다. 그는 이마를 댄다.  
 ㉣ “이 차도 달릴 줄 아는군. 난 세워두려고 만든 줄 알았더니.”  
 “그게 다 우리 차장이 ‘오라이’ 한 덕분이지. 애, 안 그래?”  
 잠바를 입은 이 씨는 나일론 천의 윤이 나는 검은빛 바지를 입은 여차장의 엉덩이가 크다고 생각한다. 차장은 아직 화가나 있다. 이 씨는 잠바 호주머니에서 껌을 한 통 꺼낸다. 김 씨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달리는 버스는 유쾌하다. 속이 훑트이는 것이 만사가 술술 풀릴 것 같다.  
 “너 이거 먹을 줄 아니?”  
 이 씨가 껌을 하나 쑥 뽑아서 차장의 등뒤로 들이민다. 차장은 뒤를 돌아보고 피식 웃는다.  
 ㉤ “꿈이 어떻게 껌을 먹어요?”  
 “뭘? 하 하. 제법이구나. 뻘어. 꿈은 원래 재주를 잘 부리지. 먹어뉘. 손해될 거 있나?”  
 차장은 껌을 받는다. 이 씨는 옆에 있는 김 씨에게 그리고 뒤에 앉은 박 씨와 그 옆의 여자에게까지 고루 껌을 하나씩 권한다. 그리고 남은 하나를 꼬집어내서 껌질을 벗긴다.  
 박 씨는 여자와 급속도로 친해지고 있다.  
 “집이 원래 군하리요?”  
 “아뇨. 인천예요.”  
 “아, 이사하셨군.”  
 “아뇨, 그냥 거기서 살아요. 엄마하고 언니하고... 그렇게 그냥 셋이 살아요.”  
 “인천서요?”/“아뇨. 군하리서요.”  
 “인천엔 아무도 없구요?”  
 ㉥ “아뇨. 거기두... 아이,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으세요?”  
 “참, 그렇군.”  
 참 그렇다니. 김 씨는 실소한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지만 등뒤에서 하는 이야기를 죄다 듣고 있다. 그는 항상 시치미를 뚝 떼고 있기를 좋아한다. 알고도 모른 척, 모르고도 모른 척. 그것은 대단히 즐거운 일이다. “당신 아무래도 수상한데?” 뭘가? “어제 두시에서 다섯시까지 사이에 어디에 있었수?” 건 왜 물우? “안 되지. 난 못 속이우. 박형은 속여두 난 못 속인단 말이우.” 허 허 허 허.  
 그는 슬쩍 이 씨를 옆눈질해 본다. 제 비록 약다 하나 이쪽에서 가가대소만 하고 있는 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으리오.  
 “앉어, 응? 서 있으면 몸에 해롭지.”/“괜찮아요.”  
 “아, 지금이야 괜찮지. 이 댜에 커서 시집갈 때 해롭단 이야기야.”  
 차장은 얼굴을 붉히고 중간쯤에 있는 빈자리에 가서 앉는다. 이 씨는 빙그레 웃는다. 실속이 없는 줄 알면서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면 그는 기분이 좋다. 그는 잠바 목 속에서 하얀 목도리를 조금 꺼내올려 컷부리를 포근히 감싸주고 의자에 등을 기대면서 담배를 뽑아 문다. 불을 붙일 생각을 하지 않고 창밖을 내다본다. 뿌듯이 흐린 하늘에는 눈발이 이따금씩 희끗거리고 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뒤에 앉은 박 씨만이 낮은 목소리로 여자와 소근거린다. 몇쩍은 몇날의 ㉦ 웃음소리만 가끔 엔진 소리 위로 솟아오를 뿐, 대체로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 서정인, 「강」 -

3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여차장’은 버스가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고 출발한 것에 대해 기분이 상해 있다.
- ② ‘김 씨’는 ‘이 씨’의 옆에, ‘박 씨’는 ‘이 씨’의 뒤에 앉아 있다.
- ③ ‘이 씨’는 ‘여자’에게 군하리에 가는 이유를 묻고 있다.
- ④ ‘운전사’는 손님들에 대해 미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 ⑤ ‘김 씨’는 일행이 하숙하고 있는 집의 주인이다.

3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이 하던 상상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 ② ㉡은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있다.
- ③ ㉠으로 인해 조성된 긴장감은 ㉡을 통해 해소되고 있다.
- ④ ㉠은 인물에 대한 호감을 강화하고, ㉡은 인물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인물의 상상 속에서만 들리는 것이다.

3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인물에 대해 지금까지는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에 대해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
- ③ ㉢: 비꼬는 말투를 통해 버스가 늦게 출발하게 된 상황에 대한 불만을 엿볼 수 있다.
- ④ ㉠: 상대방이 앞에서 자신에게 했던 농담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다.
- ⑤ ㉢: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윗글에서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제시된다. 이들이 나누는 대화는 제자리에서 걸돌며 진정한 의미의 소통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소설에서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개되는데 윗글에서는 사건의 자연스러운 전개를 방해하는 서사적 장치들도 사용되고 있다.

- ① ‘박 씨’에 대한 정보는 ‘고깔모자’, ‘기피자’, ‘전직 교사’와 같이 부분적인 것들이 흩어져서 제시되고 있다.
- ② 한집에 사는 ‘김 씨’, ‘이 씨’, ‘박 씨’ 들은 서로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지만 진정한 소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③ ‘이 씨’가 ‘여차장’에게 무의미한 농담을 건네는 모습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박 씨’와 ‘김 씨’, ‘이 씨’ 등으로 서술 대상을 계속 바꾸어 서술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사 전개를 지연시키고 있다.
- ⑤ ‘김 씨’가 장님이 되는 상상에 빠져드는 장면이 다른 인물들의 대화에 바로 이어져서 서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35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죄인처럼 수그리고  
 나는 코끼리처럼 말이 없다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너의 언덕을 달리는 찻간에  
 조고마한 자랑도 자유도 없이 앉았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다만  
 너의 가슴은 얼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안다  
 다른 한줄 너의 흐름이 쉬지 않고  
 바다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지금  
 차는 차대로 달리고  
 바람이 이리처럼 날뛰는 강 건너 벌판엔  
 나의 짧은 냇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듯 얼어붙은 듯 섰으니  
 욕된 운명은 밤 우에 밤을 마련할 뿐

[A] 잠들지 말라 우리의 강아  
 오늘 밤도  
 너의 가슴을 밟는 못 슬픔이 목마르고  
 얼음길은 거칠다 길은 멀다

길이 마음의 눈을 덮어줄  
 검은 날개는 없느냐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북간도로 간다는 강원도치와 마주앉은  
 나는 울 줄 몰라 외롭다  
 - 이용악,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

(나)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B]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놓고 마음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

(다)

㉠하는 수 없이 낙향해 버리고 만 것이 어느덧 철 수가 바뀌었다. ㉡날마다 산을 바라보고, 밤마다 물소리를 이웃하는 것밖에, 나는 책 한 권 바로 읽지 못하고, 소란한 세상을 병든 몸으로 숨어서 살아간다. 친한 벗에게는 편지 한 장 오지 않고, 들리는 소문이란 쫓기는 백성의 울부짖음밖에 아무 것도 없었다.

어찌지 못할 설움 속에 그래도 울먹거리는 마음을 다소 가라앉히기는, 노란 국화가 피면서부터였다. 여름에 미리 파 뒀던 한 평 남짓한 못에다 뒤결 미나리깡에서 물을 따 대었다. 산에 가서 기이한 돌을 가져다 쌓기도 하고, 강가에서 흰 모래와 갈대 몇 포기도 날라 온 보람이 있어, 방 들 부엌 하나밖에 없는, 이름 그대로 나의 외로운 초가삼간엔 하루아침에 가을이 왔다. 무엇을 하며, 누구와 더불어 얘기하나? 무척은 지루하고 고달프던 세월도 소슬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즐달음을 치는 듯하였다. 쓸쓸한 벗 국화와 갈대꽃이 창 밖에 와서 기다려도, 이 내 어찌지 못할 설움을 그들도 하소연하지 않는가? 높은 구름이 못 위에 어리는 날이면, 창을 열고 먼 산을 바라다가 또 꽃을 바라고, 내 마음의 애무(愛撫)는 이 가냘픈, 그러나 칼날 같은 마음 앞에 적이 설레었다.

㉢서릿발이 높아지자 국화는 더욱 청초해 가고, 나는 국화를 바라보단 불현듯 맨발로 섬돌에 내리도록 서글퍼졌다.

논밭이 가까운 나의 집에는 이따금 메뚜기가 풀숲으로 뛰어 든다. 수탉은 메뚜기를 잡으러 쫓아가다간 놓쳐 버리고, 담장 위에서 꼬끼오 하고 길게 목청을 뽑는다. 무척 고요한 대낮에 낫답 소리가 끝나면, 마을은 더욱 고요해진다.

서울 성북동 아무 운치도 없는 집을 꾸미라고 근원 화백(畫伯)이 보내 주신, 손수 가꾼 국화분을 하룻밤 자고 나니 닭들이 꽃과 잎을 모조리 따 먹고 부러진 줄기가 뒷마루에 떨어졌더니, 닭도 시골 닭은 국화를 먹기는커녕 국화 그늘 아래 즐거이 별을 쪼이며 준다. 사람이 콩깍지만 먹고 살거니, 미물이 꽃을 먹는 풍류를 아니 배울 수 있겠는가 하고, 그때는 웃을 수밖에 없었으나, ㉣닭만큼도 국화를 즐기지 못하는 지금의 나의 마음을 국화는 알 것이다.

아아, ㉤국화가 나에게 한껏 슬픔을 더해 준다고소니, 영혼과 육신이 함께 목마른 지금의 나에게 국화가 없으면 낙엽이 창살을 휘몰아치는 기나긴 가을밤을 어떻게 견디랴.

- 조지훈, 「무국어(撫菊語)」 -

3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나)와 (다)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화자 내면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와 (다)는 계절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공간의 변화에 따른 정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를 활용하여 역동적인 느낌을 강화하고 있다.

3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청자는 의인화되어 있다.
- ② [B]는 특정 어구를 반복하고 있다.
- ③ [A]와 [B] 모두 구체적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
- ④ [A]는 명령형 어미, [B]는 청유형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⑤ [A]는 영탄적 어조, [B]는 냉소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

37. 제시된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과제]** (가)와 (다)는 모두 일제 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가)와 (다)에서는 화자 또는 작가가 처한 시대 현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에서 비롯된 심적 상황이 나 태도 등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작품에서 근거가 되는 구절을 찾아보자.

- ① (가)의 ‘죄인처럼 수그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과 (다)의 ‘병든 몸으로 숨어서’ 살아가는 작가의 모습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 ② (가)에서는 ‘두만강’이 화자에게, (다)에서는 ‘국화’가 작가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존재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의 ‘바람이 이리처럼 날뛰는 강’은 (다)의 ‘쫓기는 백성의 울부짖음밖에’ 없는 세상과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밤 우에 밤’에서도, (다)의 작가는 ‘지루하고 고달프던 세월’에서도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가)의 ‘울 줄 몰라 외롭다’와 (다)의 ‘어찌지 못할 설움’에서 화자와 작가의 심적 상황을 느낄 수 있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차이를 동반하는 반복, 즉 변주를 중심으로 행과 행, 연과 연이 구조화되어 있다. 각 연에서는 반복되는 시구들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시구가 점층적으로 덧붙여지고 있으며, 그러한 변주가 연과 연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변주를 통해 상황이나 화자의 태도가 구체화되고, 의미의 점층적 강화가 이루어진다.

- ① 1연에서는 ‘떨어진’, ‘마당 위에 떨어진’이 점층적으로 덧붙여지면서 ‘눈은 살아 있다’의 상황이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 ② 1~2연으로 이루어진 전반부의 내용은 3~4연으로 이루어진 후반부에서 변주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1연과 3연은 ‘눈은 살아 있다’라는 시구를 중심으로, 2연과 4연은 ‘기침을 하자’라는 시구를 중심으로 변주되고 있다.
- ④ 2연의 ‘눈더러 보라고 마음놓고 마음놓고’는 4연의 ‘눈을 바라보며’로 변주되면서 의미의 점층적 강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⑤ 4연의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에서는 ‘기침을 하자’가 ‘가래라도 뱉자’로 변화되면서 거기에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와 ‘마음껏’이 덧붙여져 있다.

3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낙향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이었음을 ‘하는 수 없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② ㉡: 동일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날마다’, ‘밤마다’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 가을이 깊어질수록 국화의 청초함이 돋보이게 됨을 ‘더욱’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 ④ ㉣: 국화를 여유 있게 즐기지 못하는 현재 자신의 처지를 ‘답만큼도’를 통해 부각하고 있다.
- ⑤ ㉣: 국화를 보면서 점점 위축되어 가는 자신의 존재감을 ‘한갓’을 통해 부각하고 있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라도 남원에 살고 있는 양생은 일찍이 아버이를 여윈 뒤 여태껏 장가를 들지 못하고 만복사 동쪽 골방에서 홀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고요한 그 골방 문 앞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이하여 꽃이 활짝 피어 온 뜰 안 가득 백옥의 세계를 환하게 밝혀 놓았다. ㉠ 그는 달 밝은 밤이면 언제나 객회(客懷)를 억누르지 못하여 나무 밑을 거닐곤 했는데, 어느 날 밤 그 꽃다운 정서를 건잡지 못하고 문득 ㉡ 시 두 수를 지어 읊었다.

한 그루 배꽃나무 적료함을 짝하고  
가련하다 달 밝은 밤 헛되이 보내나니  
젊은이만 홀로 누운 외로운 창가에  
어디서 고운 님은 옥통소를 불고 있나

짝 못 지은 비취새 외로이 날아가고  
짝 잃은 원앙도 맑은 강에 노니는데  
뉘 집에서 바둑 두리란 약속이 있으려나  
밤이면 서러운 창에 기대 불꽃점을 쳐 보네.

시를 다 읊고 나자 별안간 공중에서 이상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진정으로 자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자 하는데 그 무엇이 어려울 게 있으리오.”

이 소리를 듣고 양생은 크게 기뻐하였다.

그 이튿날은 마침 삼월 이십사일이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그곳 마을의 많은 청춘 남녀들이 으레 만복사를 찾아가 향불을 피우고는 각기 제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다. 이날 양생은 저녁에 기도가 끝나자 법당에 들어가서 소매 깊이 간직하고 갔던 저포(檣蒲)를 꺼내어 불전에 던지기 전에 먼저 소원을 빌었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저녁엔 제가 부처님과 함께 저포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면 법연(法筵)을 차려서 부처님께 갚아드릴 것이고, 만일 부처님께서 지시면 반드시

제 소원인 어여쁜 아가씨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 축원을 마치고는 즉시 저포를 던지자, 과연 그는 소원대로 승리를 얻게 되었다. 그는 매우 기뻐서 다시금 불전에 꿇어앉아 말씀을 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의 아름다운 인연은 이미 정해졌사오니, 원컨대 자비하신 부처님께서서는 소생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는 불좌 뒤 깊숙한 곳에 앉아서 동정을 살폈다.

얼마 안 되어 과연 아가씨 하나가 들어오는데, 나이는 한 열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고, 새까만 머리에 ㉣ 화장을 곱게 한 얼굴이 마치 채운(彩雲)을 타고 내려온 월궁의 선녀와 같고 자세히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곱고 압전하였다.

그녀는 백옥 같은 손으로 등잔에 기름을 부어 불을 켜고 향로에다 향을 꽂은 뒤 세 번 절을 하고는 꿇어앉아 슬피 탄식하였다.

“아아, 인생이 박명하다고는 하나 어찌 이와 같을 줄 알았겠는가?”

여인은 품속에서 뭔가 글이 적힌 종이를 꺼내어 탁자 앞에 바쳤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아무 고을 아무 땅에 사는 아무개가 아뢰옵니다.

지난날 변방을 잘 지키지 못해 왜구가 침략하였습니다. 창과 칼이 난무하고 위급을 알리는 봉화가 몇 해나 이어지더니 가옥이 불타고 백성들이 노략질 당하였습니다. 이리저리로 달아나 숨는 사이 친척이며 하인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 저는 연약한 여자인지라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스스로 규방 속에 들어가 끝내 정절을 지켜서 무도한 재앙을 피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여자가 절개를 지킨 일을 옳게 여기셔서 외진 땅 외진 곳의 풀밭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셨으니, 제가 그곳에 머문 지도 이미 삼 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을 하늘에 뜬 달을 보고 봄에 핀 꽃을 보며 헛되이 세월 보냄을 가슴 아파하고, 떠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시냇물처럼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입니다. 텅 빈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기구한 제 운명에 한숨짓고, 좋은 밤을 홀로 지새우며 오색찬란한 난새가 혼자서 추는 춤에 마음 아파합니다. ㉥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제 늙은 녹아 없어지고, 여름밤 겨울밤마다 애간장이 찢어집니다. 바라옵나니 부처님이시여, 제 처지를 가엾게 여겨 주소서. 제 앞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기구한 운명일망정 인연이 있다면 하루 빨리 기쁨을 얻게 하시어 제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말아 주소서.

여인은 소원이 담긴 종이를 던지고 목메어 슬피 울었다. 양생이 좁은 틈 사이로 여인의 자태를 보고는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뛰쳐나가 말했다.

“좀 전에 부처님께 글을 바친 건 무슨 일 때문입니까?”

양생은 종이에 쓴 글을 읽어 보더니 기쁨이 얼굴에 가득한 채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밤에 여기까지 오셨소?”

그녀는 대답했다.

㉦ “저도 역시 사람입니다. 저를 의아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만 좋은 배필을 얻으려는 것이지요?”

이때 만복사는 이미 퇴락하여 승려들은 한쪽 구석진 골방으로 옮겨가 있었고, 법당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으며, 행랑이 끝난 곳에 좁다란 판자방이 하나 있었다.

양생이 여인을 불러 그곳으로 들어가니 여인은 별 주저함 없이 따라갔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름없었다.

(중략)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함께 개령동으로 향하였다. 어느 한 곳에 이르니 다복썩이 들을 덮고 참천한 고목 속에 정쇄한 수간 초당이 나타났다. 양생은 아가씨가 이끄는 대로 따라 들어갔다.

방 안에는 침구와 휘장이 잘 정리되어 있고, 밥상을 올리는 데 모든 음식이 어젯밤 만복사의 차림과 차이가 없었다. 양생은 껍이나 기쁜 마음으로 이틀 동안을 유유히 보냈다.

시녀는 얼굴이 매우 아름답고 조금도 교활한 면이 없었다. 좌우에 진열되어 있는 그릇들은 깨끗하고 품위가 있어 그는 간혹 의아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은근한 정에 마음이 끌려 다시금 그런 생각을 되풀이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양생에게 말했다.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곳의 사흘은 인간의 삼 년과 같습니다. 가연을 맺은 지가 잠깐인 듯하오나 오래 되었사오니, 너무 서운하긴 하나 당신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셔서 옛날의 살림을 돌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여보시오. 이별이라니 갑작스레 그게 웬 말이오?”

“오늘 못 다 이룬 소원은 내세에 다시 만나 다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예절도 인간과 다름이 없사오니 저의 친척과 이웃 동무들을 만나보고 떠나심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대화가 끝나자 그녀는 시녀를 시켜 친척과 이웃 동무들을 초대하였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반복되는 행동에 담긴 양생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여인의 외양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과거 회상을 통해 자책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과장된 표현을 통해 절실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되묻는 방식을 통해 양생의 의중을 확인하고 있다.

41. ㉠와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에 비해 화자의 다양한 소망이 열거되고 있다.
- ② ㉠는 ㉡와 달리 자연물에 감정을 투영하여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③ ㉡는 ㉠에 비해 본심을 숨긴 채 우회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 ④ ㉡는 ㉠와 달리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와 ㉡는 모두 가정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만복사저포기」의 양생은 불우한 삶으로 인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양생은 결국 현실에서 문제 해결의 출구를 만들지 못하다가 환상 세계의 존재와 교류하게 됨으로써 욕망의 충족을 경험한다. 하지만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는 서로 다른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환상 세계에서 이룬 욕망의 성취는 현실 세계에까지 이어지지 못한다.

- ① 양생이 부처님에게 저포 놀이를 하자고 제안한 것은,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의 대립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군.
- ② 양생과 여인이 서로 만나 즐거움을 나누는 곳이라는 점에서, 만복사는 현실 세계의 존재와 환상 세계의 존재가 교류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여인이 양생에게 이곳의 사흘이 인간 세계의 삼 년과 같다고 말하는 장면은,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의 질서가 다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양생이 여인과 이별하고 인간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환상 세계에서 성취된 욕망이 현실 세계에까지 이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양생이 좋은 배필을 얻고자 했으나 여태껏 장가를 들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현실 세계에서는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연을 소재로 한 시조 작품들은 조선 시대 사대부들에 의해 창작된 시조 문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대부들은 이들 시조를 통해 자연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었다. 이들에게 있어 자연은 질서와 조화를 이룬 아름다움의 공간이자 완상의 대상이었다. 또한 자연은 영원불변한 우주 만물의 보편타당한 이치이자 인간이 지향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천리(天理)가 구현된 관념적 공간이었다. 따라서 자연의 본성을 궁구하는 것은 이를 통해 자연에서 발견한 천리를 인간의 현실에서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자연을 소재로 한 사대부들의 시조는 이러한 노력을 형상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청산(靑山)는 옛데하야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A] 유수(流水)는 옛데하야 주야(晝夜)에 굿디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

- 이황, 「도산십이곡」 <후 5> -

위 시조에는 자연에 구현된 천리가 곧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타당한 이치라고 보는 시각과 함께, 자연을 닮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현실에서도 천리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현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자연을 소재로 한 16세기 사대부들의 시조에서 빈번히 드러나는데, 이는 무수한 좌절을 겪은 끝에 도덕적, 이념적 정당성을 내세워 현실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던 당대 사

대부들의 낙관적 전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 사대부들은 당쟁과 외적의 침략으로 혼란스러워진 현실에서 성리학적 이념과 도덕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다. 이 시기 사대부들의 시조에서 자연은 여전히 천리가 구현되어 있으며 질서와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간주되었지만,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먼 혼탁함과 부조리의 공간으로 여겨졌다. 이들 시조에서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에 몰입하고 그 흥취를 즐긴다. 그러는 가운데 이와는 동떨어진 현실에 대한 거리감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압개에 안기 짓고 뿔피희 희 비친다

비떠라 비떠라

밤물은 거의 디고 낚물이 미러 온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강촌(江村) 온갖 고지 먼 빗치 더욱 도타 <춘 1>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습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 들락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간 고기 뛰노는다 <춘 4>

긴 날이 저므는 줄 흥(興)에 미쳐 모르도다

돋디여라 돋디여라

빋대를 두드리고 수조가(水調歌)를 불러 보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애내성 중에 만고심(萬古心)\*을 기 뉘 알고 <하 6>

수국(水國)에 ㄱ올히 드니 고기마다 슬져 인다

달드러라 달드러라

만경 징파(萬頃澄波)에 슬꺨지 용여호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인간(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추 2>

- 윤선도, 「어부사시사」 -

\*애내성 중에 만고심: 주자의 '무이구곡가' 중 한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사공의 뱃노래에 드러난 세상 만고의 근심'을 뜻함.

43.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7세기 사대부들의 시조에서 나타나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들이 당시 경험한 현실의 혼란이 반영된 것이다.
- ② 이전 시기의 시조와 달리 17세기 사대부들의 시조에서는 천리와 자연이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 ③ 현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16세기 사대부들의 낙관적 전망은 이들에 의해 창작된 시조의 내용에 영향을 주었다.
- ④ 16세기와 17세기 사대부들의 시조에는 자연을 관념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 있다.
- ⑤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시조를 통해 자연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었다.

44. (가)의 맥락에서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산', '유수'는 모두 인간이 지향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천리를 연상시키는 소재라 할 수 있다.
- ② '만고에 프르르며', '주야애 굶디 아니논고'는 '청산'과 '유수'를 통해 드러난 보편타당한 이치의 속성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초, 중장은 인간의 현실에서 천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대한 한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종장에서 '청산'과 '유수'의 속성을 '우리'와 관련된 것으로 재진술한 것은, 자연에 구현된 천리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치로 보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종장은 자연을 닮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현실 속에서 천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45. (가)를 바탕으로 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춘 1>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차하는 '안기'와 '희', '밤물'과 '낚물'은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춘 4>에서 '어촌 두어 집'은 '벽구기'와 '버들습'이 어우러진 가운데 '온간 고기 뛰노'는 자연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면서 현실의 혼탁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하 6>에서 '만고심'이란 어부 생활의 풍류를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을 떠올리고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내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추 2>에서 '만경 징파에 슬꺨지 용여호자'는 화자의 말은 자연에 몰입하여 흥취를 즐기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추 2>에서 '머도록 더욱 도타'는 것은 '인간'으로 제시된 현실의 부조리함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을 반영한 표현으로 볼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